‘대장경’ 국난극복 정신, 60년 넘어 재현

해인사, 4월 11일 ‘제60회 팔만대장경 정대불사’ 거행

대장경의날 60년 맞아 준비
코로나 예방위해 소규모 진행
〈금광명경〉 합송, 극복 기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전쟁, 질병, 가난, 삼재는 사람들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빚어집니다. 탐진치라고 불리는 이 세 가지 원인을 바로잡아 세상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라는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입니다.”

몽골의 침입 당시 국난을 극복하고자 조성된 팔만대장경,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와 세계를 위해 팔만대장경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4월 11일 ‘제60회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정대불사’를 해인사 일대에서 봉행했다. 매년 성대하게 열린 정대불사였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국난을 극복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해인사는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대장경의날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해 왔다. 하지만 모든 행사를 축소하고 일정도 조정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와 초대 내빈을 대폭 축소하고 방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

행사에는 방장 원각 스님과 총무원장 원행 스님, 주지 현응 스님을 비롯해 주지 말사 스님 외 일반 대중은 20여 명이 동참했다. 대중들은 모두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유지했으며 방역을 위해 철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사부대중은 인류를 위한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고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호국금광명경〉을 팔만대장경이 있는 장경판전 앞에서 합송했다. 욕심과 어리석음을 버린 성숙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달되기를 기원했다.

1부는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육법공양과 방장 원각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분향으로 법회가 시작됐고 헌다와 헌화가 이어졌다. 팔만대장경 조성과 수호를 위한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고유문 낭독과 법요식 및 법문으로 팔만대장경의 조성 의미를 기렸다.

방장 원각 스님은 “ ‘많은 이가 아프기 때문에 나도 또한 아프고 그들이 낫는다면 나의 병도 나을 것이다’ 라 했던 유마거사의 동체대비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며 “전염병으로 인한 재앙이 하루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팔만대장경을 한 자 한 자 깎아 내던 그 정성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되겠다”고 법문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제60회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정대불사’를 4월 11일 해인사 일대에서 봉행했다. 해인사는 정대불사를 코로나19 확산예방 및 국난극복기도로 회향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팔만대장경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인류 평화를 기원했다. 원행 스님은 “우리 다함께 평화의 길로 가자”며 “다툼의 극대화가 아닌 자비 공동체를, 미혹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의 길을, 분열된 이기심이 아닌 통일된 이타심이 곧 평화이다”고 평화의 마음을 재차 강조했다.

주지 현응 스님은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기념법회는 팔만대장경의 정신과 대장경을 조성한 뜻을 기려 전쟁, 질병, 가난 등 이 시대 모든 재난을 극복하고 세상의 안녕과 평화를 기리고자 마련한 시간”이라며 “올해 기념법회는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태의 조속한 종식, 그리고 국가사회의 안녕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2부는 장경판전 마당에서 모든 대중이 모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로 진행됐다. 대중들은 〈호국금광명경〉을 합송하며 세계에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했다. 〈호국금광명경〉은 나라를 지키는 호국 경전으로 금빛 같이 밝은 경이란 뜻을 가졌다.

3부는 장경판전 법보전에서 시작해 학사대와 해인도가 그려져 있는 구광루 앞으로 자리가 이어졌으며 합장 순례 및 정대요잡이 진행됐다. ‘정대’는 존경의 의미로 대장경판을 머리에 이고 받든다는 의미이다. 참석 대중은 팔만대장경 경판을 머리에 이고 이운의식을 재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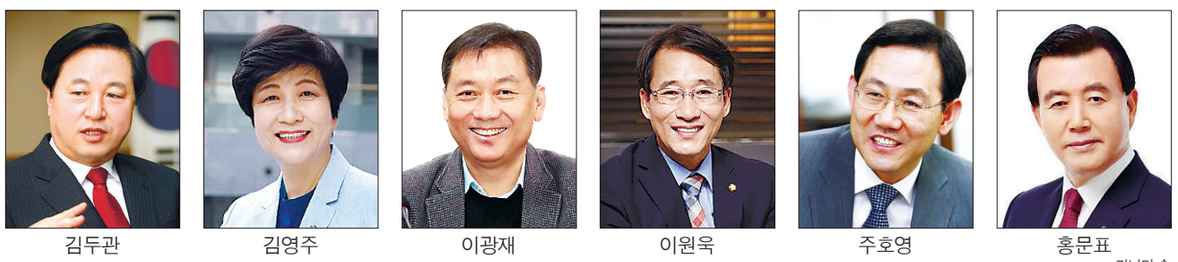
정대요잡은 조선 태조 7년(1398년) 장경판을 강화도 선원사에서 해인사로 이운 할 때 신도들이 경판을 머리에 이고 옮긴데서 유래했다. 이후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는 1961년 팔만대장경을 수호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에 ‘해인봉찬회’를 조직한 영암 스님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봉행됐고 양력 4월 둘째 주 금, 토 이틀에 걸쳐 60년 동안 진행한 역사적인 행사이다. 2016년 5월에 ‘해인사 고려팔만대자경의 날 기념법회’로 명명해 행사는 확대됐다.

4부는 보경당 특설제단에서 팔만대장경 및 장경판전 공덕주의 공덕을 기리는 헌다례로 마무리 됐다.

한편, 해인사는 11일 행사장에서 조계종 백만원력결집불사 기금으로 5000만원을 기부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불자 당선인은

정각회 활동 인물 다수
불자대상 수상자도 입성
정각회 인원 줄어들 듯
동국대 동문 17명 당선


김두관 김영주 이광재 이원욱 주호영 홍문표 *가나다 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자 후보 30여 명이 당선돼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이번 총선 개표 결과에 따르면 출마한 불자 후보 50여 명 중 30여 명이 당선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대 국회보다 정각회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불자 당선인으로는 불자 국회의원 신행단체인 정각회 부회장 출신의 김영주(서울 영등포갑) 당선인과 정각회 간사장·부회장을 역임한 이원욱(화성시을) 당선인을 꼽을 수 있다.

대표적 불자의원으로 꼽히는 김두관(양산시을) 당선인은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의 영예를 얻었다. 김두관 당선인은 지난 2007년 조계종 前 종정 법전 스님에게 ‘웅기(雄氣)’라는 법명을 받고 불교에 귀의한 바 있다.

강원도지사를 역임한 이광재(원주시갑) 당선인은 10년 만에 정계에 성공적으로 복귀했다. 제17, 18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정각회 간사장과 민주당 국회의원 불자모임인 연등회 회원으로 활동했었다.

이밖에도 민주당 불자 국회의원 당선인으로는 서영교(중랑구갑)·진선미(강동구갑)·강선우(강서구갑)·정춘숙(용인시병)·박영순(대전 대덕구)·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오영훈(제주시을)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도 다수의 불자 의원이 배출됐다. 눈길을 끄는 인물은 단연 김병주 당선인이다. 김병주 당선인은 지난해 불자대상을 수상한 예비역 군장성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재직 당시 제13대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을 맡았던 신행경력을 갖고 있다.

미래통합당 불자 국회의원 당선인은 불교세가 강한 경남·경북 지역에 몰려 있다. 대표적 불자 국회의원으로 꼽히는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당선인은 제17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구을’로 출마해 당선된 이래 제20대까지 당선됐다. 이번에는 ‘수성구갑’으로 출마·당선돼 5선의원이 됐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정각회 회장을 역임했다.

국회 정각회서 활동한 홍문표(충남 예산홍성)·이종배(충북 충주)·서병수(부산진구갑)·임이자(경북 상주문경)·김석기(경북 경주)도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도 백종헌(부산 금정)·정동만(부산 기장군)·박대출(경남 진주시갑)·정점식(경남 통영고성군) 당선인 등도 불자로 알려졌다.

또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김태호 前 경남도지사(산청함양거창합천)도 신심 높은 불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교종립 대학 동국대 동문 국회의원들도 19명이 나왔다. 동국대 총동문회에 따르면 제21대 총선에서 지역구 17명, 비례대표 2명 등 총 19명 동문이 당선돼 동국의 정치학맥의 위상을 높였다.

주요 당선자로는 4선에 성공한 홍영표(철학78, 더불어민주당, 인천부평을)·노웅래(언론정보99, 더불어민주당, 서울마포갑) 당선인을 비롯해 이상직(경영82, 더불어민주당, 전주을)·이주환(경제85, 미래통합당, 부산연제구)·구자근(법학86, 미래통합당, 경북구미갑) 등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꾸준히 이어지는 코로나 자비행

종단협 등 성금 및 물품 기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불교계의 자비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는 4월 13일 재난구호 모금전문기관인 희망브릿지 재해구호협회에 ‘코로나19 대응 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전달식에는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 조계종 사회부장 덕조, 종단협 사무처장 진경 스님이 참석했다.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 스님은 “물결치는 언덕을 같이 헤쳐 나가자는 뜻으로 불교계가 함께 마음을 모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극복되기를 부처님께 서원하며 성금을 모연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도 조계종 영덕사암연합회가 4월 16일 영덕군을 찾아 코로나19 특별기금 350만원을 전달했으며, 조계종 영주사암연합회도 4월 12일 영주시에 코로나 극복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는 4월 12일 조계사에 코로나 자비나눔 1000만원을 전달했다.

문수복지재단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도 4월 13일 ‘사랑의 손길 함께해요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긴급 대체식 나눔’을 복지관 내 마당에서 진행했다.

노덕현·하성미 기자

공주 이달의 인물 ‘화승 약효 스님’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4월 이달의 역사인물로 마곡사를 중심으로 오늘날까지 전통불화의 맥을 잇게 한 최고의 화승 ‘금호당 약효 스님’을 선정했다. 금호당 약효 스님(1846~1928)은 마곡사를 중심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불화를 그렸던 화승으로 ‘계룡산화파’를 형성, 전통불화의 맥을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한 인물이다.

속성은 김(金), 당호는 금호(錦湖), 법명은 약효(若效)인 금호당은 20대 초 출가하여 마곡사에 머물면서 불화를 그리며 후학 양성에 힘쓰다가 1928년 83세의 세수로 입적했다.

공주시는 전통불화의 맥을 잇고 몸소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한 금호당 약효 스님의 삶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4월 이달의 역사인물로 선정하고 마곡사와 연계해 약효 스님 특강 및 어린이 그림그리기 프로그램 등을 코로나19 상황 해제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푸르게살라

모든 어려움이 모두를 살리는 지혜로
화하길 발원합니다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한마음선원 진주봉사단이 지역주민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소통하는
휴게음식점 “푸르게살라”는 2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하여 영업을 쉬고 있지만
4월 말에는 다시 지역주민과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진주봉사단 일동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번지